

# 『병자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충주 이안지역의 農法\*

조혁연\*\*

- 
- I. 머리말
  - II. 이안지역의 농지 환경
  - III. 남평 조씨家의 노비구성
  - IV. 17세기 충주 이안지역 農法 특징
    1. 보리갈이
    2. 논갈이
    3. 논살이와 파종
    4. 김매기
    5. 시비
    6. 이양법 부재
  - V. 맺음말
- 

## I. 머리말

병자호란(인조 14)은 조선 조정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줬다. 남이공<sup>1)</sup>(南以恭, 1565~1640)의 정경부인 남평 조씨

---

\* 이 글은 전고 『『병자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충주 이안 지역의 농법』(2013, 『충북학』 15집)을 수정한 것이다.

\*\* 충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南平 曹氏, 1574~1645)는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편으로부터 “일이 급하게 되었으니 짐 붙이는 생각은 말고 낮밤을 가리지 말고 빨리 청풍으로 가라”<sup>2)</sup>는 전갈을 받고 피난길에 올랐다.

이후 남평<sup>3)</sup> 조씨는 1636년(병자) 12월부터 1640년(경진) 8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의 체험인 『병자일기』<sup>4)</sup>를 썼다.

일기는 대체로 ‘난중피란기’(1636년 12월 15일~1637년 2월 17일), ‘서산·당진체류기’(1637년 12월 18일~1638년 1월 25일), ‘충주 체류기’(1638년 1월 26일<sup>5)</sup>~5월 28일), ‘서울 귀환기’(1638년 5월 29일 이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sup>6)</sup>

병자호란은 인조가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항복을 한 1637년 1월에 종전됐으나 남평 조씨는 귀경하지 않고 서산·당진을 거쳐 충주 이안(利安)<sup>7)</sup> 지역에 4개월 가량 체류했다. 남평 조씨는 병자호란이 종전된 후 비교적 긴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서울 본가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 이안에 머무른 것은 남편 남이공이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평 조씨는 이 기간 동안 솔거, 외거 등 전국의 노비들과 굳건히 결합해 자급자족적인 가정 경제를 운영했다. 또 身貢에 의한 것만으로는 경제수입이 열악하자 양반가 간의 膳

1)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적만(敵萬), 호는 시북(市北). 남위(南瑋)의 아들이다. 병자호란 이듬해 소현세자가 볼모로 심양(瀋陽)에 잡혀갈 때 우빈객으로 세자를 극진히 호위하였으며, 그뒤 돌아와 춘성부원군에 봉해졌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성강리에 영당과 묘소가 있다.

2) 『병자일기』 1636년(무인) 12월 16일 “이리 급하여시니 짐브티란 승각디 마오 망듀야하여 청풍으로 가라.”

3) 전남 나주시 남평, 산포, 금천, 봉황면 등 동부지역 일대의 옛 지명이다. 백제 때는 미동부리현(未冬夫里縣) 지역이었다가 고려 태조 23년(940)에 남평군(南平郡)으로 바뀌었다. 남평 조씨는 창녕 조씨(昌寧曹氏)에서 분적한 성씨로 알려져 있다.

4) 겉표지의 제목은 ‘송정병자일기(崇禎丙子日記)’로 되어 있으나 대개 ‘병자일기’로 통용된다.

5) 실제 충주 남면에 도착한 것은 이보다 나흘 늦은 1638년 1월 그림이다.

6) 박경신, 1990, 『『병자일기』 연구』, 『국어국문학』 104, 국어국문학회, 167쪽.

7) 지금의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에 해당한다(한글학회, 1970, 『한국지명총람3(충북편)』, 456쪽).

物 수수를 통해 상호 扶助했고 제사봉행도 그녀의 몫이었다. 『병자일기』는 작자와 창작연대가 분명한 여성 實記문학이다. 이 때문에 국문학계<sup>8)</sup>는 서지, 문체, 어휘, 음운 등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생산하고 있고, 민속학계<sup>9)</sup>에서는 의식주, 관혼상제, 세시풍습 차원에서 『병자일기』에 접근을 하고 있다. 농업사 분야에는 『병자일기』를 주제로 쓴 박근필의 박사학위논문<sup>10)</sup> 등 두 편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에는 아직 한 편의 논문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안이 충북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17세기 전기 충주 이안 지역의 농지 환경은 어떠한가? 그때의 노비 구성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남평 조씨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노비를 使役시켜 농업경영을 했을까? 나아가 조선 稻作의 획기적인 변화인 이앙법은 행해지고 있었는가?

본 글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농촌사회와 영농환경 복원 그리고 농법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병자일기』 원문은 중세한글 해서체로 기록돼 있고, 또 난필에 띄어쓰기가 돼 있지 않아 일반인이 읽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글은 원문과 함께 『역주 병자일기』<sup>11)</sup>를 기초로 구성했고, 원문은 주처리했다.

8) 문희순, 2010, 「남평조씨 3년 9개월의 가정과 인간경영」, 『한국언어문학』 75, 한국언어문화회 ; 박경신, 1990, 「『병자일기』 연구」, 『국어국문학』 104, 국어국문화회 ; 정우봉, 2012, 「남평조씨 『병자일기』의 성격과 작품공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변순희, 1999, 『일기체 문학 『병자일기』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함정옥, 2007, 『남평 조씨 『병자일기』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9) 박경신, 1994, 「『병자일기』에 나타난 1630년대 후반의 민속」, 『울산어문논집』 9, 울산대학교.

10) 박근필, 2004, 「『병자일기』시기 남이옹가의 경제생활」, 『농업사연구』 3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 2002, 「『병자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기후와 농업」,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역자 전형대·박경신, 1991, 『역주 병자일기』, 예전사, 622쪽.



<그림1> 『병자일기』 표지와 내용.

## II. 이안지역의 농지 환경

남평 조씨가 두 번째 체류지인 서산·당진을 떠나 충청도 지역에 진입한 것은 1638년 1월 27일(유성 근처)이었고 이후 닷새 만에 세 번째 체류지인 충주 이안의 ‘정수 어미의 집’(2월 2일)에 도착했다. 남평 조씨는 먼 여정에 지쳤는지 이안 도착의 심정을

‘정수 어미의 집에 오니 집도 무던하고 종이 집에 오니 편하다. 흥정택에서 술 한 병을 보내왔다. 아무 데 가더라도 종이 라는 것이 우연하지 않다.’<sup>12)</sup>

라고 적었다. 그녀는 그 직전에 청안 시화 역마을(1월 28일), 충주 남면(1월 29일), 그리고 남면과 이안의 중간 지점으로 여겨지는 ‘장남

12) 1636년 2월 2일 “덩슈어미지비오니집도드던코종의지비오니편하다흥정택의서술흥병보내여겨시다아무데가도종이란거시우연티아니하다.”

의 집’(2월 1일)에서 각각 1박했다. 남평 조씨는 이안 정수 어미의 집에서 온 후 노비 사역을 통해 기거할 집을 신속히 짓는 등<sup>13)</sup> 본격적인 체류생활을 시작했다. <표1>은 지금의 충북지역 진입과 그해 6월 1일 달천변인 충주 월탄을 통해 한양으로 되돌아가기까지의 간략한 행적이다.

<표1> 남평 조씨의 1638년 1~6월 행적

연도	월	일	장소	비고
1638년 (무인)	1월	28일	청안땅 시화 역마을	1박
		30일	충주 남면	1박
	2월	1일	충주	중 정남의 집 1박
		2일	정수 어미 집	충주 이안에서 체류생활 시작
	5월	29일	월탄 1박	남편귀국, 이안 체류생활 종료
	6월	1일	월탄 출발	홍판사 전승, 남한강 물길로 귀경

『병자일기』에서 남평 조씨의 가작지(家作地)로 등장하는 지명은 ‘흙당’, ‘벗고개’, ‘돌샘골’, ‘거리실’, ‘이안’, ‘돛골’ 등 6개이다. 이중 ‘흙당’, ‘벗고개’, ‘돌샘골’, ‘거리실’ 등에는 답(畓)이 있었고, ‘이안’에는 전(田)이 존재했다. 그리고 ‘돛골’에는 외거노비 ‘용수’에게 병작을 준 답이 위치했다. ㉠~㉦는 『병자일기』에 처음 등장하는 5개 지명의 각 용례들이다.

㉠흙당: ‘흙당 논 열서 마지기를 정수오 소 한 마리, 사람 열 하나가 같았다.’(1638년 3월 2일)<sup>14)</sup>

㉡벗고개: ‘오늘 벗고개 논을 인부들을 들여 가느라고 종들이 다 갔다.’(“ 3월 3일)<sup>15)</sup>

13) 2월 22일 “집을 헐어서 더 짓고 고쳤다.”

2월 23일 “새로 삼간 집을 세웠다.”

2월 25일 “집에 지붕을 이었다.”

14) 원문 “흙당논열서말디기덩쉬쇼흐나사람열흐나가다.”

15) 원문 “오늘벗고개논인부로가노라종들다갔다.”

㉔돌샘골: ‘오늘 돌샘골 논 일곱 마지기를 갈았다. 소하고  
종들 여섯이서 정수와 함께 갔다.’(“ 3월 5·6일)<sup>16)</sup>

㉕거리실: ‘거리실 논을 집의 종 다섯과 정수 삼형제가 가  
래 들과 소 한 마리로 하루에 갈려고 갔다.’(“ 3월 15일)<sup>17)</sup>

㉖이안: ‘이안 밭에 보리 갈려고 소 두 마리와 사람 열 명  
이 보리씨 열여섯 말을 가지고 갔다.’(“ 2월 15일)<sup>18)</sup>

㉗돛골: ‘용수가 돛골 논 열너 마지기와 또 두 마지기를 병  
작으로 하기로 하고 씨를 가져갔다.’(“ 4월 4일)<sup>19)</sup>

세거지에 위치한 양반 지주들의 16세기 농장은 동심원적 구조를 보  
이는 것이 보통이었다. 主家 인근에는 가작지가 분포하고 그 너머에  
가작지와 作人들의 경작지가 혼재돼 있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작  
인들의 경작지만 위치했다. 이처럼 16세기 양반 지주들은 일종의 중심  
지인 가작지를 중심으로 영농을 진두지휘했다.<sup>20)</sup>

그러나 남평 조씨의 농지가 분포하고 있는 충주 이안지역에서는 이  
같은 입지가 성립되지 않았다. 재경지주인 남평 조씨가 이안 지역에  
임시 체류하고 있지 않고 한양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이들 농지는 가  
작지가 아닌 외거노비들의 託營地가 된다. 이안지역 외거노비들은 남  
평 조씨 소유의 전답을 경작하는 대신 약속된 신공을 이행하는 것으  
로 주가에 대한 노비의 의무를 이행해 왔다. 때문에 남평 조씨의 임시  
체류지인 충주 이안지역에서는 동심원적 구조가 성립되지 않았다.

16) 원문 “오늘돌십골논닐곱말디기가다쇼호고종여섯덩쉬호고가다”(이날은 이  
틀 일기를 한꺼번에 썼다).

17) 원문 “거리실논집종다섯덩쉬삼형데두가래과쇼호나호로갈라가다.”

18) 원문 “니안밭보리갈라쇼둘사름열보리씨열연말가져가다.”

19) 원문 “농쉬돛골논열너마디기또두말디기병작으로씨가져가다.”

20) 김건태, 2008,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역비한국학연구원총서23),  
역사비평사, 113쪽.



<그림2> 충주 이안 일대의 남평 조씨 전답 위치

『병자일기』 속의 ‘흙당’, ‘벗고개’, ‘돌샘골’, ‘거리실’, ‘이안’, ‘독골’ 등 6개 탁영 경작지는 하나의 길다란 골짜기 안에 위치하면서 불규칙하게 산포해 있다.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70)을 바탕으로 지명 추적의 한 결과, ‘흙당’은 지금의 대소원면 완오리 흑평마을 또는 검은들마을, ‘벗고개’는 지금의 가금면 용전리 범현, ‘거리실’은 대소원면 완오리 거리마을, ‘이안’은 대소원면 본리 일대, ‘독골’은 대소원면 독동마을의 옛 지명인 것으로 확인된다.<sup>21)</sup> ‘돌샘골’은 『한국지명총람』과 현지 촌로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다.<sup>22)</sup>

‘흙당’은 堯渡川<sup>23)</sup> 옆의 들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남평 조씨가

21) 한글학회 편집부, 1970, 『한국지명총람』, 한국학회, 454~458쪽.

22) 지명상 ‘돌샘골’로 추정되는 곳으로는 다무락골(완오리 골짜기, 돌이 많음), 물탕골(완오리 골짜기, 조그만 샘), 주정골(완오리 골짜기, 찬샘 존재) 등이 있다.

23) 충주시 신니면의 남서쪽 부용산 등에서 발원하여 주덕읍대소원면을 거쳐 용두동에서 달천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머물고 있는 이안 ‘정수 어미의 집’과 직선거리<sup>24)</sup>로 1.5km 떨어져 있다. 비교적 평야지대이면서 灌溉가 용이한 입지를 지니고 있다. ‘벗고개’는 지명 그대로 고개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이안에서 직선거리로 3.4km 떨어져 있고 고개 너머로 좁은 들이 형성돼 있다. 거리실은 골짜기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이안으로부터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뒤에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거리실 논은 水耕直播<sup>25)</sup>와 乾耕直播<sup>26)</sup>가 혼재하는 등 경작환경이 다소 열악한 곳이었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돌샘골은 물대기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천수답으로 파악됐다. 그 때문인지 『병자일기』에는 돌샘골 논이 수경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돛골은 ‘용수’<sup>27)</sup>에게 병작을 준 논이 있는 곳으로 좁은 들이 형성돼 있는 등 중간 정도의 경작환경을 지녔고, 이안집에서 가장 가까운 1.3km 거리에 위치했다. 이안의 밭은 지명에 드러난 것처럼 남평 조씨가 머무르는 곳인 ‘정수 어미의 집’ 바로 옆에 위치했다.

<표2> 이안으로부터의 직선거리 및 입지환경

가작지	직선거리	입지 환경
흙당(흑평, 검은들)	1.5km	넓은 들
벗고개(법현)	3.4km	좁은 들
돌샘골(?)	?	?
거리실(거리)	1.5km	골짜기 고지대
돛골(돛동)	1.3km	좁은 들(병작지)
이안(본리)	집 부근	밭

\*( )는 현재 지명.

24) 직선거리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브이월드 지도서비스’를 통해 측정했다.

25) 물논에 썩레질을 한 후 범씨를 파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26) 물이 없거나 부족해 논을 삶지(썩레질) 못하고 起耕[쟁기질]만 한 후 播種하는 것을 말한다.

27) 이 논문의 ④참조.

<표2>에서 보듯 17세기 전기 충주목 ‘이안 골짜기’에는 남이옹가의 농장이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남이옹이 어떻게 이안 지역에 농장을 소유, 재경지주가 됐는지는 사료상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남이옹이 이안 골짜기 6곳의 농지를 功臣田이나 賜牌地로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이옹은 1624년 이괄의 난 때 黃州守城大將으로 공을 세워 이듬해 春城君(진무공신 3등)에 봉해졌고<sup>28)</sup>, 1632년 인목대비의 喪事 때는 수릉관을 맡은 바 있다.<sup>29)</sup>

### Ⅲ. 남평 조씨家의 노비구성

남평 조씨는 사대부가의 부인으로 영농경험이 풍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농지를 경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소유하고 있는 노비가 수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가는 노비의 부양을 책임지고, 노비들은 주가에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등 主-奴 사이에 자급자족적인 경제 공동체 의식이 굳건히 작동했다.

『병자일기』의 충주 체류기에는 ‘종’(종들, 사내종 포함), ‘집의 종’, ‘계집종(안종 포함)’, ‘00명’ 등으로 호칭되는 노비들이 다수 등장한다. 이와는 달리, ‘00’, ‘00이’, ‘000 남편’, ‘000 아내’ 등 호칭을 지닌 노비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밖에 ‘사람’, ‘인부’ 등 보통명사로 호칭된 인물도 빈도는 다소 낮지만 여러 번 보이고 있다.

기록된 인물의 호칭과 그에 따른 전후 노동과정을 살펴보면, 남평 조씨는 술거노비, 외거노비, 품앗이 일꾼, 양인, 양반 등의 집단에 대해 명확히 계층적으로 호칭했다. 술거노비(일명 仰役노비)는 主家에 기거

---

28) 『인조실록』 인조 3년 1월 3일. 남이옹을 춘성군으로, 김기종을 영해군으로 삼았는데, 이는 진무공신에 추가로 참여시킨 것이다. 오윤겸을 지돈령부사로, 오준을 홍문관 수찬으로 삼았다.

29) 『인조실록』 인조 10년 6월 28일. 형조 참판 남이옹을 수릉관으로, 내관 김인을 侍陵官으로 삼았다.

하면서 사시사철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로 신체 자유를 속박 당했다. 남편 조씨는 이들을 단수와 복수 그리고 성별에 따라 ‘중’, ‘중들’, ‘집의 중’, ‘사내중’, ‘OO명’, ‘계집중’, ‘안중’ 등으로 호칭했다.

<표3> 영농과 관련 남편 조씨의 노비호칭

구분	내용	
솔거노비	중 (중들)	3월 3일, 5일, 7일, 8일, 4월 1일, 2일, 5월 14일, 18일, 19일, 23일 (총 10건)
	집의 중	3월 9일, 12일, 15일, 16일, 17일, 19일, 20일, 30일, 4월 3일, 9일, 10일, 11일, 17일, 18일, 22*23일, 24일, 25일, 27일, 5월 6일, 8일, 9일, 10일, 11일, 13일, 14일, 20일, 21일, 22일, 24일, 25일, 26일 (총 31건)
	OO명	3월 11일, 26일, 4월 4일, 13일, 14일, 15일, 17일, 18일, 19일, 20일, 25일, 28일, 30일, 5월 1일, 7일, 12일, 15일, 16일, 17일 (총 19건)
	계집중 (안중)	4월 11일, 14일, 5월 23일(총 3건)
외거노비	이름	<u>정수</u> (3월 2일, 5일, 9일, 10일, 12일, 15일, 16일, 17일, 19일, 20일, 26일, 30일, 4월 2일, 9일, 10일, 11일, 14일, 17일, 18일, 22*23일, 25일, 30일, 5월 6일, 8일, 12일, 14일, 16일, 20일, 23일, 24일) (총 30건) <u>정수아내</u> (5월 14일) <u>장남이</u> (3월 20일, 30일, 5월 22일)(총 3건) <u>장남이아내</u> (4월 30일) <u>용수</u> (3월 26일, 4월 3일, 4일, 9일, 17일, 21일, 5월 16일, 24일)(총 9건) <u>용수아내</u> (5월 23일) <u>이른개 남편</u> (3월 30일) <u>재소</u> (4월 9일) <u>안소</u> (4월 9일) <u>황조</u> (4월 18일) <u>진만이</u> (4월 25일, 5월 8일, 16일, 17일, 18일)(총 5건) <u>수야</u> (4월 27일) <u>충이</u> (5월 21일)

		쇠아내(5월 23일)
품 앗 이	사람	2월 15일, 3월 2일
	인부	3월 3일

외거노비(일명 使喚노비)는 주가에 기거하지 않았지만 같은 동네나 타지에 살면서 일정의 노동력과 신공을 제공하는 노비로 신체 속박이 솔거노비보다 덜했다. 이중 신공만 책임지는 외거노비는 같은 동네가 아닌 타지에 거주, ‘동내 외거노비’와는 구분된다. 남평 조씨는 이들에 대해 앞서 서술한대로 ‘OO’, ‘OO이’, ‘OOO 남편’, ‘OOO 아내’ 등의 식으로 이름만을 호칭하고 姓은 생략했다.

이밖에 품앗이 일꾼은 ‘사람’, ‘인부’ 등 보통명사로 호칭했고, 양인이나 양반에게는 ‘성+이름’, ‘성+직함’<sup>30)</sup>, ‘OOO댁’<sup>31)</sup> 등으로 호칭하는 등 위계의식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다.

『병자일기』 충주 체류기간의 농사일과 관련된 호칭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솔거노비의 경우 ‘집의 종’이 31건, ‘OO명’ 19건, ‘종 또는 종들’(사내종도 포함) 10건, ‘계집종 또는 안종’ 3건 1건 등으로, ‘집의 종’으로 호출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농사일과 관련된 외거노비의 호칭으로는 ‘정수’(30건), ‘용수’(9건), ‘진만이’(5건), ‘장남이’(3건) 순으로 많았고, 나머지 ‘정수아내’, ‘장남이아내’, ‘용수아내’, ‘채소’, ‘안소’, ‘황조’, ‘수야’, ‘층이’, ‘쇠아내’는 각 1건 등이었다. 이밖에 품앗이 일꾼 호칭인 ‘사람’은 2건, ‘인부’는 1건이었다. <표3>은 이를 정리한 것으로, 호칭의 빈도수만 보면 솔거노비 총 63건, 외거노비 총 57건으로 그 정도가 비슷하다.

그러나 남평 조씨는 복수의 솔거노비의 경우 ‘OO명’ 식으로 호칭했기 때문에 경작지에 대한 전체 노동력 투입량은 솔거노비가 훨씬 많

30) 2월 21일 “서울 사람을 기다렸는데 목지평의 편지를 보니 교지의 기별도 없다.”

31) 2월 13일·14일 “홍판사가 월탄에서 보려고 찾아오시니 반갑기가 그지 없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는 열아흐렛 날에 이찰봉댁과 목계조지평댁도 다 오신다고 부디 나를 오라고 청하러 오신 것이다.”

있을 것이다. 남평 조씨는 家内外 노비들의 이런 使役환경에서 보리갈이<sup>32)</sup>나 대규모 논갈이<sup>33)</sup> 같이 노동력이 일시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때는 외부에서 품을 사는 방법으로 농번기 현상을 해결했다.

여기서 외거노비의 인적 구성과 관련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표3>은 ‘정수’의 호칭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거노비 ‘정수’의 역할은 다음 ㉠~㉢를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2월 2일: 정수 어미의 집에 오니 집도 무던하고 종의 집에 오니 편하다.<sup>34)</sup>

㉡ 3월 2일: 흙당 논 열서 마지기를 정수와 소 한 마리, 사람 열하나가 갈았다.<sup>35)</sup>

㉢ 4월 28일: 오늘도 정수가 계속 하여 집안일을 하느라고 부치는 논이나 제 논이나 김을 묵히게 되니...<sup>36)</sup>

㉠은 남평 조씨가 체류하고 있는 집이 婢인 ‘정수 어미의 집’이고, ㉡는 ‘정수’가 그 해 첫 농사를 품앗이꾼을 데리고 쟁기질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의 ‘제 논이나 김을 묵히게 되니’라는 표현에서 보듯 ‘정수’는 자기 재산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다.

‘정수’는 이 같은 개인 입지를 바탕으로 영농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는 남평 조씨를 대신해 보리갈이, 논갈이, 논살기, 파종, 김매기 등 주가의 각종 영농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즉 ‘정수’는 노비들의 리더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정수의 어미’라는 표현으로 볼 때 정수는 ‘미혼’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달리 남평 조씨는 <표3>에서 보듯 기혼자 외거노비의 경우 ‘OOO아내’, ‘OOO 남편’ 등으로 호칭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남평 조씨家의 이안지역 외거노비는 <표3>에 등장하는 인물

32) 2월 15일 “이안 밭에 보리 갈려고 소 두 마리와 사람 열 명이 보리씨 열여섯 말을 가지고 갔다.”

33) 3월 3일 “오늘 벗고개 논을 인부들을 들여 가느라고 종들이 다 갔다.”

34) 원문 “덩쉬어미지비오니집도드던코종의지비오니편하다.”

35) 원문 “흙당논열서말디기덩쉬쇼흐나사람열하나가다.”

36) 원문 “오늘은덩쉬안일을년흐여브티기나제허여기음이무기게되니 ...”

이 전부는 아니었다. 『병자일기』 속의 ‘OO’, ‘OO이’ 등으로 호칭되는 외거노비는 <표3>의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이들의 主家에서의 사역은 한 분야 일을 계속 하는 등 사역 전문화가 분명히 이뤄져 있었다. 영농에 종사하는 외거노비는 계속 농사일을 하고, 신공수납, 편지수발 등 주가의 ‘네트워크적 사역’을 담당한 외거노비는 발품을 팔며 전국 여러 곳의 탁영지를 누볐다. 후자는 고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IV. 17세기 충주 이안지역 農法 특징

### 1. 보리갈이

남평 조씨는 1638년 2월 15일 충주 이안지역 밭에 보리를 파종하는 것으로 한 해 농사를 시작했고, 하루 뒤에는 녹두를 갈았다.

‘이안 밭에 보리를 갈려고 소 두 마리와 사람 열 명이 보리 씨 열여섯 말을 가지고 갔다.’<sup>37)</sup>

‘녹두를 갈았다. 여섯 말을 품앗이로 갈았다.’<sup>38)</sup>

보리는 파종 시기에 따라 봄보리[春麥]와 가을보리[秋麥]가 있고 그 장소에 따라 旱田과 水田種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보리 재배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언제나 旱田秋麥이었다.<sup>39)</sup> 그럼에도 남평 조씨가 왜 봄보리를 파종했는지 『병자일기』 상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보리는 봄보리가 됐든 가을보리가 됐든 夏至를 전후로 수확하는 것이 보통이다. 남평 조씨 역시 전통의 농법대로 하지 하루 뒤인 5월 23

37) 원문 “니안밭보리갈라쇼들사름열보리씨열연말가져가다.”

38) 원문 “청녹두7마르다연말았다.”

39) 김용섭, 1964, 「조선후기의 수도작기술: 도·맥 이모작의 보급에 대하여」, 『아세아연구』 7권 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144쪽.

일 ‘사내 중 셋과 정수 삼형제’를 시켜 봄보리를 수확했다.<sup>40)</sup>

봄보리를 파종했다는 것은 그루같이[二毛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보리건이가 있는 다음날인 5월 24일 어느 잡곡인지 품종은 드러나지 않으나 그루같이를 한 것<sup>41)</sup>으로 『병자일기』에 기록했다.

이밖에 『병자일기』에는 수확을 의미하는 ‘추수’라는 표현이 3월 26일<sup>42)</sup>, 3월 30일<sup>43)</sup> 두 차례 더 등장하나 이때 거둬들인 작물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앞서 서술한대로 3월은 분명히 보리 수확철이 아니고, 녹두도 4월 이후에나 파종하는 밭작물이기 때문에 두 품종을 이때 수확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전년도 가을해 파종된 秋麥을 이때 수확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으나, 앞서 서술한대로 보리는 생육상 하지에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은 추후로 미루고자 한다.

남평 조씨의 보리재배는 봄보리를 2월 중순쯤 旱田에 파종해 하지 무렵에 수확하는 등 전통농법에 충실한 모습으로,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았다.

## 2. 논갈이

전통시대 벼재배는 대략 논갈이-가래질-씨레질-파종-김매기-시비-가을걷이 순이다. 영농의 기계·과학화로 가래질, 김매기 등은 거의 사라졌으나 나머지 농법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병자일기』의 영농상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편의상 논갈이[起耨]=A, 가래질=B, 논삶기[씨레질]=C, 씨뿌리기[播種]=D, 모기르기[移秧]=E, 김매기[除草]=F, 수확=G, 시비(施肥)=H 등의 기호를 부여했다.

『병자일기』 충주 체류기에는 총 9번의 논갈이(A)가 기록돼 있다.

40) 5월 23일 “사내 중 넷과 정수 삼형제는 보리 거두러 갔다.”

41) 5월 24일 “정수, 집종들은 이안의 밭에 그루같이 하러 갔다.”

42) “흙당논에 다섯이서 추수하였다.”

43) “열셋이서 거리실 논에 추수하였다.”

<표4>와 <표5>에서 보듯 3월 2일(A1) 시작해 4월 24일(A9) 논갈이를 마쳤다. 그러나 쟁기와 소[牛]를 이용한 논갈이는 순차적인 것이 아닌, ‘청명 이전’, ‘청명~곡우 사이’, ‘곡우~입하 사이’, ‘소만 전후’ 등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다. ‘청명 이전’에는 3번, ‘청명~곡우 사이’에도 4번, ‘곡우~입하 사이’는 1번, ‘소만 전후’ 1번의 논갈이가 있었다.

이처럼 논갈이 작업이 일정하지 않고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는 것은 올벼, 늦벼 등의 파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명 이전으로 가장 먼저(3월 2일) 논갈이를 한 흙당 논(A1)에는 분명히 올벼가 파종됐고, 사흘 뒤인 3월 5일(A3) 논갈이를 한 돌샘골 논에도 올벼 씨가 뿌려졌다. 『병자일기』 3월 12일(C1), 9일자(D3)의 기록은 이때의 논갈이가 早稻인지, 晚稻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표4> 『병자일기』 1638년 3월의 농작업 현황

절기	청명										곡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흙당		A1						B1	B2	C1																G1			C2	
벗고개			A2																		A									
돌샘골					A3			A4	D3						D4															
거리실														A	A														D5	G2
이안기타														B3	B4															

비고: A 논갈이(起耕), B 가래질, C 논살기(씨레질), D 씨뿌리기(播種), E 모기르기(養苗), F 김매기(除草), G 수확, H 시비(施肥).

3월 12일: 흙당 올벼는 다섯 마지기를 삼으러 집의 중 다섯과 정수까지 갔다.

3월 9일: 오늘 돌샘골 논에 올벼 일곱 말 씨 뿌리러 갔다.

남평 조씨는 3월 2일, 5일 논갈이를 한 흙당 논과 돌샘골의 논에 대해 각각 ‘올벼논 다섯 마지기’, ‘올벼 일곱 말’이라고 기록했다.<sup>44)</sup> 나머지는 대체로 늦은벼[晚稻]가 파종됐으나, 논갈이의 시점이 각기 다른 것은 노동력 동원 등에 따른 변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밖에 논갈이가 늦어진 논 중에는 분명히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천수답이 존재했다.

<표5> 『병자일기』 1638년 4월의 농작업 현황

절기	입하																												소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답	흙당							C5 + D6						F3	F4	F5	F6															F11
	벗고개	A8	C3	C4																												
	돌샘골								F1	F2												F7		A9	F8							
	거리실								D7					C6 + D8				D9	D10							F9			F10			
전	이안																															
	기타																															

비고: A 논갈이[起耕], B 가래질, C 논살기[씨레질], D 씨뿌리기[播種], E 모기르기[養苗], F 김매기[除草], G 수확, H 시비(施肥).

남평 조씨는 각종 농지 경작을 위해 소[牛]의畜력을 활용했고, 충주목 이안의 ‘정수 어미의 집’ 외양간에는 農牛가 최소 3마리 존재했다. 그리고 농우를 주로 부린 사람은 외거노비들의 리더인 ‘정수’였다.

44) 벗고개 논의 3월 3일자 논갈이(A2)에도 정황상 올벼가 파종된 것으로 보이나 3월 일기에는 파종의 기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2월 26일: 종들이 싸리와 외(根) 하러 소 세 마리를 몰고 갔다.<sup>45)</sup>

3월 2일: 흙당 논 열서 마지기를 정수와 소 한 마리, 사람 열하나가 갈았다.<sup>46)</sup>

남평 조씨家 논갈이의 주요 특징은 ‘청명 이전’과 ‘곡우 이전’ 등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고, 이는 早稻와 晚稻 파종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사려 된다.

### 3. 논살이와 파종

조선시대 각종 농서에 등장하는 범씨 파종의 유형으로는 直播法, 乾耕直播法, 水耕直播法, 移秧法 등이 있고, 가뭄현상이 찾아올 때는 乾秧法이 부분적으로 사용됐다. 直播法은 논갈이[起耕] 없이 범씨를 직접 뿌리는 것, 乾耕直播法은 논갈이만 한 상태의 乾畝에 범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했다.

水耕直播法은 썩레질한 물논에 범씨를 뿌리는 방법으로, 썩레질은 달리 ‘논살이’ 혹은 ‘무살이’로 불리었다. 이밖에 移秧法은 못자리에서 묘를 먼저 육묘한 후 본논으로 옮겨 심는 것, 乾秧法은 가뭄으로 물논에서 못자리를 만들지 못할 경우 乾畝에서 養苗한 후 본논에 옮겨 심는 것을 의미했다. 『병자일기』에는 播種(D)에 관한 기록이 2~5월 사이에 총 11회 등장한다. 이중 범씨 파종은 D3~D11까지 총 9회이고, 나머지 D1은 보리, D2는 녹두<sup>47)</sup>, 그리고 D11은 품종을 알 수 없지만 봄보리를 수확한 후 그루갈이를 위해 씨앗을 뿌린 경우였다.(표 4-6) 남평 조씨는 『병자일기』에서 파종의 의미로 ‘씨뿌리다’ 외에 ‘부치다’<sup>48)</sup>라는

45) “종들뿌리과외하라세바리가다.”

46) “흙당논열서말디기뎡치쇼흐나사름열흐나가다.”

47) 2월 15일(D1)과 2월 16일(D2) 각각 보리와 녹두씨를 파종했으나, 편의상 2월은 표를 만들지 않았다.

48) 3월 28일 “오늘 거리실 논 서 말 반지기 부쳤다.”



가장 열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서술한 ‘충주 이안지역의 남평 조씨家 농지입지 환경’과 거의 일치한다(<표2> 참조). 특히 흙당 논은 요도천 주변에 위치, 남평 조씨의 이안일대 논경작지 중 물대기 환경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모든 파종이 水耕直播로 진행됐다. 반면 거리실 논은 때로는 ‘물을 퍼올려서’ 써레질을 한 후 볍씨를 파종할 정도의 악환경을 지닌 논이었다.

4월 18일: 오늘 거리실 논을 마저 부쳤다. 정수와 집의 종셋이 물을 퍼올리고 부치러 갔다.<sup>50)</sup>

돌샘골 논의 열악한 관개 환경은 <표7>을 보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다.

<표7> 돌샘골 논의 논갈이와 파종

순서	날짜	내용
1	3월 5·6일	돌샘골 논 일곱 마지기를 갈았다. 소하고 종들 여섯이서 정수와 함께 갈았다.
2	3월 8일	돌샘골 논에 종들이 가서 갈고 쇠스랑질 하였다.
3	3월 9일	돌샘골 논에 올벼 일곱 말 씨 뿌리러 갔다.
4	3월 16일	정수가 돌샘골 논에 뿌릴 씨 열네 말을 맡아 가지고 갔다.
5	4월 24일	돌샘골 올벼논을 집의 종과 노비 여덟이 갈았다.

<표7>의 돌샘골 논에는 ‘써레질’[무삶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남평 조씨는 『병자일기』에서 물논에 써레질을 했을 경우 ‘삶다’라는 표현을 매번 사용했으나 <표7>에서는 이 같은 유형의 표현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다.

게다가 3월 8·9일자 일기는 논을 갈은 후 써레질 없이 쇠스랑질만

50) 원문 “오늘거리실논마자브티다덩쉬집종세물퍼올리고부르라갔다.”

51) 이날은 양일을 모아서 일기를 썼다.

하고 다음날 바로 범씨를 파종하는 등 乾耕直播를 했다. 이는 돌샘골 논이 본래 천수답이었고, 그런 가운데 1638년 봄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8>은 병자일기 속의 1638년 2~5월 강수 현황에 대한 정리다.

<표8> 1638년의 2~5월 강우현황

강우 일	2월 5·6 일	8일	10 일	25일	3월 7일	15일	16일	17일	18일	24일	30 일	5월 9일	10일	27일	28 일	29 일
강우 정도	비 조금	비	눈	비 조금	중일 비	밤중 비	중일 비	아침 비	오후 비	늦게 비	밤 비	가끔 비	아침 비	비	비	비

2~5월 중 강우현상을 보인 날은 16일에 불과하고 게다가 ‘중일 비’가 온 날은 단 2일, 그리고 4월달에는 강우현상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 등 1638년 봄 극심한 한발이 찾아왔다. 돌샘골 논이 ‘쇠스랑질 후의 파종’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표8>을 보면 논갈이 후 쇠스랑으로 粉土를 하던 하루 전날인 3월 7일에 온중일 비가 왔다. 썩레질은 작업시간이 길고 또 물이 많으면 썩레 밀이 안 보이고, 반면 물이 너무 적으로 썩레가 앞으로 잘 나가지 않는 등 의외로 까다로운 일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날 썩레질 없이 쇠스랑질을 한 후 곧바로 범씨 파종으로 들어간 것은 전날 얻은 토양수분을 최대한 이용, 가급적 빨리 범씨를 파종하려 한 행동이었다.

1638년 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던 사실은 『병자일기』 다른 곳에 서도 다수 기록돼 있다. 물이 없어 범씨를 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가뭄 정도가 너무 심하자 남평 조씨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다.

3월 21일: 눈에 물이 말라서 못 부치고 추수하기에도 아직  
 일러서 오늘은 톱질 한다.<sup>52)</sup>

52) 원문 “눈이몰라서못트티고갈것기일러오날톱질한다.”

4월 12일: ‘날씨가 하도 가무니 보리도 못 먹게 되고 만물이 다 타니 하늘이 너무 하신다. 하늘이 만민을 아니 살려 내시겠는가 하면서도 이렇게 가뭄이 심하니 민망하다.’<sup>53)</sup>

다만 남평 조씨는 쇠스랑질 다음날 돌샘골 논에 늦벼가 아닌 ‘올벼 일곱 말’<sup>54)</sup>을 뿌렸다. 봄가뭄에 늦벼가 아닌 올벼를 파종한 것은 『農事直設』의 ‘春旱不可水耕 宜乾耕 唯種晚稻’ 서술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파종일이 3월 9일로 상당히 이른 것에서 보듯, 남평 조씨는 돌샘골 논에는 처음부터 早稻를 재배하려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평 조씨家는 논살이와 파종과 관련해 물이 부족하면 ‘물을 퍼올려’ 써레질을 할 정도로 水耕直播를 선호했다. 그러나 가뭄이 심하게 든 천수답은 쇠스랑질을 한 후 파종을 하는 등 乾耕直播를 병행했다. 그러나 이양법은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

#### 4. 김매기

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를 제거하고 토양을 복돋아주는 농작업이 김매기다. 전답에서 작물이 잡초와 함께 자라면 생장에 반드시 필요한 햇빛, 양분, 수분, 공간 등을 빼앗기기 때문에 지속적인 제초작업은 필수적이었다. 이와 관련, 이양법을 행할 경우 직파시 4~5차례 필요한 김매기(제초작업)를 2~3차례로 그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양법은 소출이 증가하고 稻麥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이점 등을 지니고 있다.<sup>55)</sup>

그러나 남평 조씨가 임시 채류하고 있는 충주 이안지역에서 이양법이 행해졌다는 기록을 『병자일기』에서는 전혀 만날 수 없다. 이 때문

53) 원문 “ 날이하 ㅁㅁ니보리도 못먹게되고 만물이 다타다니 하늘히 그리타 만민을 아니살라내시라 하다가도 이리한지극히니민망타.”

54) 3월 9일 “오늘 돌샘골 논에 올벼 일곱 말 써 뿌리러 갔다. 집의 종 일곱과 정수까지 갔다.”

55) 국사편찬위원회 편집부, 2013,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한국사 30), 국사편찬위원회, 432쪽.

인지 조씨는 이안을 떠날 즈음에 “올벼는 세 벌째, 늦은 벼는 두 벌째 (….) 김을 매었다”<sup>56)</sup>라고 기록했다.

『병자일기』에는 총 29회의 김매기 작업이 등장한다. <표4>부터 <표6>에서 보듯 4월 9일 흙당 논(F1)에서 첫 김매기를 한 후 5월 26일 벗고개 논(F29)에서 충주 이안 체류기의 마지막 김매기를 했다. 『병자일기』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당시 농법과 관련해 보다 풍부한 김매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첫 파종후 첫 김매기를 하기까지의 시간이 早稻와 晚稻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단순 비교이기는 하나 晚稻가 早稻보다 3일 가량 늦게 김매기를 했다. 남평 조씨는 3월 8일 비가 오자 돌샘골 논을 쇠스랑질을 한 후 그 다음날 일곱 말의 올벼 벼씨를 파종했다. (<표4>의 D3) 이 돌샘골 논의 올벼에 대한 첫 김매기는 파종한지 30일이 지난 4월 9일에 있었다<sup>57)</sup>.

거리실 논에는 3월 28일 서 말 반의 벼씨를 처음으로 파종했고(<표4>의 D5), 이것은 시기적으로 만생종이다. 이 거리실 논에 대한 첫 김매기는 파종후 27일 후인 4월 25일에 있었다.<sup>58)</sup> 나머지 김매기는 조-만생종에 논 배미까지 뒤섞여 있어 추적하기가 어렵다.

이밖에 『병자일기』는 4월에는 F1~F11까지 총 11회, 5월에는 F12~F29까지 총 17회의 김매기가 있었다고 기록, 한여름으로 갈수록 김매는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여름으로 향할수록 첫 파종 후 첫 김매는 시기가 일러지고, 또 횟수가 증가한 것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잡초성장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병자일기』는 김매기 인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흙당 논에는 총 12회에 83명, 벗고개 논은 총 3회에 43명, 돌샘골 논은 총 4회

---

56) 5월 22일 “흙당논오려세벌째는즈준벼두벌재시작하여집종여숫당남부쳐미다.”

57) 4월 9일 “돌샘골 올벼논을 매러 수야하고 용수 아내와 계집 안중 냇이 갔다.”

58) 4월 25일 “오늘 거리실 닷 말지기를 진만이가 매러 갔다. 집의 종 아홉과 정수 부처, 모두 열하나가 갔다.”

에 48명, 거리실 논은 10회에 총 68명의 노동 인력이 투입됐다. 이는 당시 한 번 김매기 작업을 하는데 평균 7.8명이 동원됐음을 보여준다. <표9>는 『병자일기』 내용 중 마지기<sup>59)</sup> 당 산출이 가능한 김매기 인력만을 간추린 것이다.

<표9> 김매기 노동력 투입 규모

4월 25일(F9)	5마지기 11명	거리실 논
4월 그믐(F11)	5마지기 11명	흙당 논
5월 7일(F15)	5마지기 초벌매기+채치기 14명	?(장소 불명)
5월 8일(F16)	5마지기 11명	거리실 논

4월 25~5월 8일 사이에 5마지기 면적의 논에 각 4번의 김매기가 있었고, 이때 각 11명, 11명, 14명, 11명 등의 노동 인력이 투입됐다. 따라서 <표9>는 1마지기당 평균 2.2명의 김매기 인력이 동원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5월 7일의 장소가 불명한 김매기에는 인력이 다소 많은 14명이 투입됐으나 이날은 다른 날과 달리 ‘재(灰)치기’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위 서술 내용인 ‘1회 김매기 작업에 7.8명 투입’과 ‘1마지기당 2.2명 투입’을 상호 비교하면 당시 남평 조씨 노비들은 하루 3.5마지기 정도의 김매기 노동을 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즉 남평 조씨家 노비들의 하루 김매기 작업량은 7백평 정도였다.

김매기 작업은 잡초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때문에 『병자일기』 김매기 기간에는 남평 조씨가 소유한 노비 외에 외거노비의 아내와 남편, 심지어 노비의 형제까지도 긴급 노동력으로 투입됐다. 남평 조씨는 5월 8일자 일기에서

“오늘 거리실 논 다섯 마지기를 진만이가 먼저 매고 그 밖

59) ‘마지기’ 개념은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나 중부권의 경우 ‘2백평=1마지기’로 치는 것이 보통이다.

의 집의 종들과 정수 사형제 합해서 열하나가 갔다.”<sup>60)</sup>

라고 기록했다. ‘정수’는 남평 조씨가의 외거노비이면서 전체 노비의 리더 역할을 했다고 전술한 바 있다. 그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잡초 자라는 속도가 빨라지자 조씨 소유가 아닌 ‘자기의 나머지 형제’까지 김매기 작업에 동원했다. 『병자일기』에는 직접 기술돼 있지 않지만 ‘정수의 나머지 형제’는 품앗이로 왔을 것으로 사려된다.

남평 조씨가의 노비들은 거의 매일 영농현장에 투입됐으나 다소 여유로운 날도 있었다. 비가 온 3월 7일<sup>61)</sup>은 전답으로 나가는 대신 농기구 제작 등 家內 일을 소화했고, 또 主家の 제사가 있었던 4월 4일<sup>62)</sup>은 인근 요도천<sup>63)</sup>에 나가 祭需로 쓸 물고기를 잡기도 했다. 그리고 명절의 하나였던 단오에는 노비를 포함한 농촌 사람들은 노동현장에서 철수, 휴무를 취하기도 했다.<sup>64)</sup> 그러나 남평 조씨家の 김매기는 한여름으로 갈수록 잡초가 빨리 자라면서 그 시기가 일러지고 또 횡수도 많아졌다. 이때 노비들은 1마지기당 2.2명이 투입되면서 하루 3.5마지기 김을 맬 정도의 노동 생산성을 지니고 있었다.

## 5. 시비

전통 농법상 김매기와 더불어 조선시대 농촌을 바쁘게 한 것은 施肥[거름주기]였다. 『농가월령』(1619)은 ‘起耕할 때의 基肥(터에 비료주기) 이외에 작물이 생장하고 있는 중간에 시비하는 것이 追肥다’<sup>65)</sup>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병자일기』에서 남평 조씨家の 시비 사례는 5월

60) 원문 “오늘거리실논단만딘뎨이몬저뎨고그뎨기집종뎨쉬네형뎨아로아열흐 나가다.”

61) 3월 7일 “중일 비가 왔다. 종들에게 가래 하나, 쇠스랑 세 개 만들게 하고 비자 세우게 했다”(비자는 울타리를 의미한다).

62) 4월 4일 “나머지 종들은 고기잡이를 갔다. 고기를 잡아서 천계 제사에 쓰려고 한다”(천계는 일찍 사망한 아들임).

63) 본문에서는 특정 하천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제사용 물고기를 잡을 정도의 큰 하천은 요도천 밖에 없다.

64) 5월 4일 “오늘은 명절이라 시골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 쉰다.”

65) 국사편찬위원회 편집부, 2013, 앞 책, 436쪽.

3일(<표6>의 H1)과 같은 달 25일(<표6>의 H2) 등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흙당 논에 새를 날랐다.<sup>66)</sup>

흙당 논에 집의 종 여섯이 김매러 갔다. 그 논에 보비삶이는 김매기가 미처 두 벌을 못갔고…<sup>67)</sup>

시기상 이때는 음력 5월이기 때문에 보비삶이<sup>68)</sup>를 포함한 두 차례의 시비는 基肥가 아닌 追肥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비의 종류나 횟수로 봐 남평 조씨는 시비농법을 크게 중요시 한 것 같지는 않다.

## 6. 이앙법 부재

지금까지 살펴본 남평 조씨家 농법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앙법을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농사직설』은 早稻, 晚稻와 水耕, 乾耕, 插種(이앙법 지칭)에 대해

‘稻種 有早有晚 耕種法 有水耕(鄉名水沙彌) 有乾耕(鄉名乾沙彌) 又有插種(鄉名苗種)’

라고 기술했고 이중 插種에 대해서는 “此法便於除草 萬一太旱則失手 農家危事也”라고 부연 설명했다. 풀이하면 ‘이 법(삼중 지칭)은 제초작업에 편하나 만일 크게 가뭄이 들어 시기를 놓치면 농가에 위기로운 일이 된다’ 정도가 된다. 이 같은 신중함 때문인지 삼중은 조선 전기가 아닌 훨씬 후대인 17세기 중반 이후에나 수리시설 발전 등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대중화됐다. 그 여파로 水田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66) 원문 “흙당논지나르다.”

67) 원문 “흙당논집중여섯기음미라가다그논의보비삶미논물미처두벌갔고…”

68) 농작물에 첫 번 거름을 준 뒤 밑거름을 보충하기 위하여 더 주는 비료로 달리 덧거름이라고 부른다.

나아가 稻麥 이모작도 가능하게 되었다.<sup>69)</sup>

봄보리가 됐던 가을보리가 됐던 보리는 하지 무렵에 수확하기 때문에 벼와 생육기간이 중첩되는 면이 있다. 이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이앙법이었으나 남평 조씨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에서의 稻-麥 이모작(그루갈이) 농법은 관찰되지 않는다. 대신 남평 조씨는 밭에서 麥-豆 이모작을 했다. 다음은 보리수확(5월 23일·G3)과 그 이튿날의 그루갈이(5월 24일·D11) 내용이다.

사내 종 셋과 정수 삼형제는 보리 거두러 갔다.<sup>70)</sup>

집의 종들은 이안의 밭에 그루갈이하러 갔다.<sup>71)</sup>

조선후기 상주사람 高尚顔 지은 『농가월령』(1619)은 오월 하지 무렵의 보리 그루갈이[根耕]에 대해 ‘急收麩麥 根耕 先耕大小豆 次黍粟 次菘豆’라고 기술했다. 즉 ‘보리를 서둘러 거둔 후 그루갈이는 먼저 大小豆<sup>72)</sup>, 다음은 黍粟[기장과 조], 그 다음은 菘豆(녹두) 순으로 간다’라고 적었다. 따라서 남평 조씨의 이안밭 그루갈이도 콩이나 팥을 파종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처럼 남평 조씨가 이안 지역의 稻作에 이앙법을 도입하지 못한 데는 외거노비들의 타율성, 在京地主의 위치, 당시 기상현상, 폐쇄적인 가정경제 구조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남평 조씨는 재경지주로서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충주목 이안지역 농지를 외거노비들의 사역을 통해 탁영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경우 이안지역 외거노비들은 主家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속박을 덜 받았고, 또 태생적으로 타율성을 지니면서 이앙법 같은 선진 영농기법 수용에 소극적이거나 게을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69) 국사편찬위원회 편집부, 2013, 앞 책, 433쪽.  
70) 원문 “스나희중네과명쉬삼형제는보리거두러가다.”  
71) 원문 “집중니안밭그루갈다가다.”  
72) 대두는 콩, 소두는 팥을 의미한다.

류성룡의 셋째 아들인 류진(柳稔, 1582~1635)이 1618년에 저술한 『涓濱明農記』(위빈명농기)를 보면 당시 경상도 상주지역에는 이미 이양법이 행해지고 있었다. 특히 이 고농서는 ‘秧苗 관리와 秧基 시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기술, 못자리 시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73)</sup> 이처럼 류진은 농지가 있는 상주 현지에 거주하는 在地地主로서 영농을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남평 조씨는 실제로 재경지주였기 때문에 이양법과 같은 선진농법에는 둔감했을 것이다.

<표8>은 1638년 봄 충주목 이안지역에 가뭄이 심하게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당시 가뭄은 그 해만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17세기의 전반적인 현상이었다. 반대로 가뭄 끝의 일시적인 홍수현상도 상습적으로 찾아왔다. 박근필은 이미 『조선왕조실록』과 『병자일기』의 고찰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sup>74)</sup> 이점 역시 충주지역 이안법 부재의 주된 배경이 됐을 것이다.

남평 조씨는 충주 체류기간 동안에 장시를 단 2번만 직접 이용하는 등 폐쇄적으로 가정경제를 운영했다. 조씨는 반찬 없는 밥을 건디지 못하여 조기를 서울 장사에서 구매하고자 했고<sup>75)</sup>, 또 귀가하는 중 편에 필요한 물품을 역시 서울 장사에서 사오게 했다.<sup>76)</sup>

대신 남평 조씨는 신공을 정례적으로 수납하는 것 외에 양반가 사이의 상호 선물수수를 통해 가정경제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했다. 남평 조씨의 이같은 폐쇄적인 가정경제 운영도 이안지역의 이양법 부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73) 엄정섭, 2004, 「17세기 초반 『위빈명농기』 전사문의 편찬 경위와 농법의 특색」, 『농업사연구』 3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90~91쪽.

74) 박근필, 2005, 「17세기 小氷期 氣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대구사학』 80, 대구사학회, 313쪽.

75) 3월 22일 “하도 반찬 없는 밥에 건디지 못하여 조기나 받아 오려고 충이를 서울로 보냈다.”

76) 3월 28일 “(충이가 서울 갔다가 왔는데) 배 두 필에 조기 열여덟 못, 배 한 필에 소금 여섯 말을 사왔다.”

## V. 맺음말

『병자일기』는 피난일기이지만 영농일지에 견줄 정도의 17세기 전기의 농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이공의 부인 남평 조씨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호서지역 여러 곳을 옮겨 다닌 끝에 1638년 2월 충주목 이안지역에 도착, 4개월 동안 임시 체류를 하면서 『병자일기』를 썼다. 병자호란 전 在京地主였던 남평 조씨家は 이안지역 전답을 외거노비들의 使役을 통해 託營했다. 그러나 남평 조씨가 이곳에 체류하면서 이안 탁영지는 家作地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남평 조씨가 이안지역에 소유하고 있던 여러 농지 중 흙당, 거리실, 벗고개, 돌샘골 등 4곳의 논은 입지가 확연히 달랐다. 흙당 논은 요도 천변의 물대기 환경이 좋은 곳에 위치한 반면 돌샘골 논은 골짜기 고지대의 천수답이 있었다.

남평 조씨는 이안지역의 이런 농지를 경작하면서 사역하는 솔거노비를 ‘중’(중들, 사내중 포함), ‘집의 중’, ‘계집중’(안중 포함), ‘00명’ 등 다양하게 호칭했다. 반면 외거노비들은 ‘00’, ‘00이’, ‘000 남편’, ‘000 아내’로 부르는 등 분명히 계층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중 노출빈도가 가장 높은 외거노비는 ‘정수’라는 奴로, 그는 영농 경험이 적었을 남평 조씨를 대신해 이안지역 영농을 진두지휘했다.

이안지역 한해 농사는 봄보리 파종부터 시작됐고, 논갈이는 올벼가 파종되는 논을 가장 먼저 하는 등 시기를 달리했다. 또 灌溉 환경이 양호한 논에서는 水耕直播, 그보다 처지는 논에서는 水耕直播와 乾耕直播을 혼용했다. 흙당과 거리실 논은 물대기 환경이 가장 양호해 水耕直播가 이뤄진 반면 돌샘골 논은 천수답에 가뭄까지 겹쳐 쇠스랑질을 한 후 파종을 하는 등 乾耕直播를 했다.

이밖에 올벼는 김매기를 한 후 대략 30일, 늦은벼는 27일 경과한 시점에서 첫 김매기를 했다. 그리고 4월보다 5월의 김매기 인력이 크게 늘어나는 등 한여름으로 향할수록 첫 김매는 시기는 일러지고 노동 인력은 더 많이 투입됐다. 이는 잡초의 생장 속도가 김매기 작업에 영

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이밖에 남평 조씨는 재[灰]치기와 보비살이 정도만 하는 등 施肥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었다.

17세기 전기 충주 이안지역 농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앙법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여기에는 탁영지 외거노비들의 소극성, 당시 기상현상, 남평 조씨의 폐쇄적인 가정경제 운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에서 보듯 『병자일기』에 기록된 남평 조씨의 충주목 이안지역 농법은 이앙법 대신 水耕直播가 일반화돼 있는 등 다소 거칠고 정체돼 있었다. 조선시대 이앙법이 전면적으로 보급된 시기와 관련하여 김용섭은 17세기 중엽이후, 宮嶋博史(미야지마 히로시)<sup>77)</sup>는 17세기 초, 葉正섭은 16세기 말을 주장한 바 있다.<sup>78)</sup>

그러나 『병자일기』가 쓰여진 17세기 전기 충주목 이안지역에는 이앙법이 도입되지 않았다. 반면 『渭濱明農記』(1618)에서 보듯, 비슷한 시기 경상도 상주지역에서는 이앙법이 행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병자일기』의 내용은 이앙법 전면 보급 시기를 논한 3개 학설 중 ‘17세기 중엽 이후설’과 합치하고 있다.

이처럼 『병자일기』는 사대부가 한 여인의 피난일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이앙법이 한반도에 전면적으로 보급되기 직전의 상황을 생생하게 실증하고 있다.

[논문접수: 2014. 9.30, 심사시작: 2014. 10. 10, 심사완료: 2014. 10. 25]

주제어 : 병자일기, 남평조씨, 충주 이안지역, 이앙법, 노비

77)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도쿄대학 명예교수.

78) 국사편찬위원회 편집부, 2013, 『조선후기의 경제』(한국사 33), 국사편찬위원회, 34쪽.

【참고문헌】

남평 조씨, 『병자일기』.

『인조실록』

『농사직설』

구자옥·이승경·이은웅·이홍석, 1992, 「주요 고농서를 통한 조선시대의 稻作技術 전개과정연구-VII. 중경(中耕) 제초(除草) 방식의 전환」, 『한국잡초학회지』 12권 1호, 한국잡초학회.

국사편찬위원회 편집부, 2013, 『조선 후기의 경제』(한국사 33),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13,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한국사 30), 국사편찬위원회.

김건태, 2008,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역비한국학연구총서23), 역사비평사.

김미희·구자옥·이상경·노경희·강방훈, 2010, 「고농서에 나타나는 잡초방제 기술고찰」, 『농업사연구』 9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김영진·홍은미, 2004, 「17세기초 조선의 수도이양정책과 건담육묘기술」, 『농업사연구』 3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김용섭, 1964, 「조선후기의 수도작기술: 도·맥 이모작의 보급에 대하여」, 『아세아연구』 7.4,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_\_\_\_\_, 1965, 「조선후기의 수도작기술: 이양과 수리문제」, 『아세아연구』 8권 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남평 조씨 지음, 전영대·박경신 역주, 1991, 『역주 병자일기』, 예전사  
문희순, 2010, 「남평조씨 3년 9개월의 가정과 인간경영」, 『한국언어문학』 75, 한국언어문학회.

민성기, 1985, 「농가월령과 16세기의 농법」, 『역사와 세계』 9, 효원사학회.

박경신, 1990, 「『병자일기』 연구」, 『국어국문학』 104, 국어국문학회.

- 박경신, 1994, 「『병자일기』에 나타난 1630년대 후반의 민속」, 『울산어문논집』 9, 울산대학교.
- 박근필, 2002, 『『병자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기후와 농업』,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4, 「『병자일기』시기 남이옹가의 경제생활」, 『농업사연구』 3권 1호, 농업사학회.
- \_\_\_\_\_, 2005, 「17세기 小氷期 氣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대구사학』 80, 대구사학회.
- 변순희, 1999, 『일기체 문학 『병자일기』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정섭, 2004, 「17세기 초반 『위빈명농기 전사문』의 편찬 경위와 농업의 특색」, 『농업사연구』 3권 1호, 농업사학회.
- 李泰鎭, 2008, 「16세기의 川防(沆)灌漑의 발달」,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 정우봉, 2012, 「남평조씨 『병자일기』의 성격과 작품공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함정옥, 2007, 『남평 조씨 <병자일기>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Abstract>

The 17th Century of Chungju Ian area's farming  
methods shown in 『Byungja diary』

Cho, Hyoug-young

『Byungja diary』 is evacuation diary. However, contains a wealth of information about 17th century farming methods. Mrs nampyung cho arrived at Chungju Ian area In February 1638. Since 4 months with a temporary residence spent 『Byungja diary』. Non of the 4 places that were owned by the presence differed significantly. Some rice paddy of atmosphere was good water, Some are not. Mrs nampyung cho wrote the farming experience. Thus slave Jushu was leading the agricultural. 1 years farming was started from sowing spring barley. In this regard, the biggest feature is that it has not been introduced into the planting. There is influenced by complex phenomena such as weather. This is consistent with the claim of Dr. Yong-söp Kim. Thus 『Byungja diary』 shows vividly the 17th century farming environment.

Key words : Byungja diary, Mrs nampyung cho, Chunhju Ian area, Planting, Slave.